

[COVID-19] 반도체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방안

Managing through market disruption and beyond: Approach for semiconductor companies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KPMG와 세계반도체연맹(GSA)이 2020년 4월 22명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는 2020년 매출이 최대 1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의 90%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 이후, 2분기 내로 정상적인 매출로 돌아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코로나19가 반도체 수요 시장(End-market)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회복 속도 또한 반도체 수요 시장과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과 같이 코로나19를 앞서 겪은 국가의 회복은 V자 형태로 이뤄질 것이며, 유럽과 미국에서의 회복은 U자 형태로 비교적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산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매출 감소는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도체 기업들도 파트너 기업과 고객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볼 때, 반도체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원격 근무 도입, 운전 자본 효율화, 자본적 지출(CAPEX)과 재량적(Discretionary) 비용 감축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적 시나리오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전창익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34

changuichun@kr.kpmg.com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Keywords ▶

#COVID-19 #코로나19 #반도체 #공급망다변화 #시나리오경영